

소녀 저격수

한정영
장편소설

•
독후
활동지

◆책 소개

설아의 기억은 온몸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부러져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가 곁에서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다. 설아는 낮숨과 동시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할아버지 말로는 설아가 머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기억마저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둘은 산막에서 살았다. 사냥하고, 약초를 캐고 남들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일본군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앞으로 사냥하지 말라며 위협을 가했다. 소란은 점점 커졌다. 결국 일본군 병사가 할아버지에게 총을 쏘았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설아는 울부짖으며 상황을 외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죽음은 선명해져만 갔다. 이제 설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러다 이전부터 들렸던 자신 안의 목소리에 의문을 가졌다. 나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총을 정확하게 잘 쏘고, 체력이 남다를까. 그러던 중 자신이 할아버지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일본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설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퍼즐을 조금씩 맞춰 가는데…….



◆독서 목표

- ①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②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소설에 대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정영 장편소설
『소녀 저격수』

#자아 #성장 #역사 #가족 #존재감 #능력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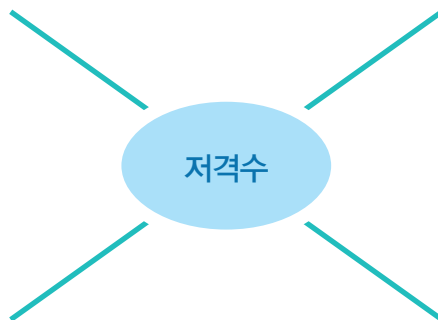
1. **생각 부풀리기**
2. **어버이 은혜**
3. **내 이름은 너의 이름**
4. **나를 알고 싶어**
5. **역사 한바탕**
6. **단어를 찾아라**
7. **의문의 궤짝**
8. **산막을 떠날 거야!**
9. **정면 돌파 (Feat. 원주댁)**
10. **수상한 사람**
11. **빛은 확실하게 갇은 거다?**
12. **소녀 저격수 시즌2**

1. 생각 부풀리기

Q1 책 표지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감상을 적어 보세요.



Q2 '저격수'와 연상되는 단어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아요.



2. 어버이 은혜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 설아…….”

문득 설아는 돌아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서, 설아…….”

(사이)

그러자 돌아섰던 병사 하나가 뒤를 돌았다. 그러더니 반사적으로 총을 겨누었다.

“안 돼!”

탕!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총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리고 어느새 설아 앞으로 나선 할아버지가 힘 없이 풀썩 쓰러졌다.

“헉!”

쓰러진 할아버지의 가슴팍에서 금세 핏물이 새어 나왔다. 가슴이 온통 새빨강게 물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설아는 꿇어앉은 채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몸을 들썩거리면서 계속 피를 토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설아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었다. _p.29

Q1

설아에게 할아버지라 불리는 민 포수 영감님은 설아를 구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설아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볼까요.

3. 내 이름은 너의 이름

까치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다만 긴 숨을 내쉴 뿐이었다. 등 뒤로 그 숨소리가 느껴졌다. 잠시 후, 설아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참 오라버니 이름은 뭐예요? 지금 내 이름은 설아인데, 원래는 무엇이였을까요?”

“난 차두현이야.”

“차두현! 차두현……. 남자다운 이름이에요.”

설아는 그 이름을 여러 번 헤아리고 말했다. 그리고 주먹밥을 한 입 더 먹고 또 물었다.

“저는 어떤 아이인가요?”

“글쎄. 넌 착하고 순하고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란 걸 오라버니도 잘 알잖아요.”

“…….”

이번에는 두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설아는 또 물었다. 백두 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_p.106

Q1 소설 속 등장인물 중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알맞은 이름에 연결해 봅시다.

설아 ●

● 차두현

샤샤 ●

● M0902

까치 ●

● 안나

4. 나를 알고 싶어

원주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설아를 쳐다보았다. 달빛에 원주택의 일그러진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순간 설아는 가슴이 탁 막혔다.

“역시 저였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사사키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것도…….”

“사사키가 여자아이를 찾는다고 했어. 그래서 병풍마을과 인근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네 또래의 여자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알려 줬을 뿐이야. 처음엔 머리가 붉고, 보통의 아이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했지. 그래서 넌 아닐 거라 생각했어. 네가 할아버지와 함께 산막에 올 때, 머리는 항상 검었으니까. 최근에야 네 머리가 붉은 것을 알았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를 유인했군요.”

“특별한 아이라고 하더구나. 그 아이가 있어야 무슨 실험이 끝난다고 했어. 내가 아는 건 그뿐이야.”

“결국 민 포수 영감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주머니 때문이었네요.”

두현이 끼어들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가슴을 찢는 듯했다. 두현이 말한 ‘괴물’이 자신이었음을 원주택을 통해 확인한 순간이었다. _p.132

Q1 설아가 남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Q2 내가 생각하는 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 달리기를 잘해요!

5. 역사 한바탕

“참 대단한 분이다. 한때는 평양인가 어디서 이름난 부자였다던데……. 그 집은 하인들도 비단옷을 입었다더라. 그런 분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한다고 여기까지 들어와 저 고생이라지? 까치는 경성에서 의전을 다니다 왔다던데…….”

두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원주택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설아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두 사람이 사라진 언덕길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원주택이 또 한마디 했다.

“하긴 대장님만 그런 것은 아니지. 이 천보산은 말할 것도 없고 봉오동이며 청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조선 팔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수천은 된다더라. 사내들은 물론이고 노인이며 아이들, 아낙네들까지 산속에 들어가 총 들고 싸운다더라.”

원주택은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서 있는 설아의 팔을 가볍게 잡아끌었다. 그때까지도 설아의 머릿속에는 정말 이제 산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란 생각 때문에 공연히 가슴이 쓰렸다. 마치 가슴 속에 찬바람이 드는 기분이었을까. 백두 대장의 말이 그랬다. 산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을 가슴에 묻고 살라는 건 결국 할아버지를 잊으라는 것이니까. 그 때문에 설아는 할아버지와 살았던 초가에 들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온 게 사뭇 후회되었다. 무엇보다 변변한 유품 하나 챙기지 못했으니까. 백두 대장이 한사코 말리긴 했다. 공연히 가슴만 아플 것이니, 그냥 떠나라고. _p.53

Q1 소설 속에서 언급되는 두 가지 전투 이름은 뭘까요?

Q2 전투의 실제 배경지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어 볼까요?

6. 단어를 찾아라

Q1 아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적어 주세요.

어디선가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동시에 앞쪽 트럭에서 내린 아이 두엇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소녀는 몸을 낮추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트럭이 내달려 왔던 길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이 틀림없었다.

“차 뒤로 숨어!”

누군가가 외쳤다. 동시에 트럭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있던 일본군도 뛰어내려 ()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그러는 중에도 아이들 둘이 더 쓰러졌다. 일본군 병사 한 명도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핏 보니, ()은 못해도 스무 명은 되는 듯했다. 소녀는 자동차 뒤에 숨어서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일본군을 없애려는 것 인지, 아이들을 노리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긴 ()은 그 어느 쪽의 편도 아니라고 했다. _p.10

자작나무 뒤에서 ()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세 마리였다. 유독 얼굴과 등의 잿빛 털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허리가 잘록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한눈에 보아도 굶주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밤에 돌아다니는 ()가 대낮에 나타나 사람의 뒤를 쫓는 것을 보면 보통 일은 아닌 듯싶었다. 문득 지난겨울의 가뭄으로 굶주린 짐승들이 많으니, 너무 산속 깊이 들어가 지 말라던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_p.18

“내가 정말 ()이에요?”

사사키의 말에 설아는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살짝 떨렸지만,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이냐? 넌 누구보다 훌륭한 ()이었지. W1125.”

순간 설아는 흠칫 놀랐다. 할아버지의 궤짝 속에 있던 족쇄에서 본 숫자였다. 그 때문에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_p.141

7. 의문의 궤짝

궤짝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곱게 접힌 한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설아는 얼른 그것을 펴들었다. 언문으로 쓰인 글씨였다.

(사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아는 여러 번 숨을 몰아쉬고 궤짝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살폈다. 무엇보다 짐승의 가죽으로 둘둘 말아 놓은……. 그건 한눈에 보아도 총이었다. 설아는 재빨리 가죽을 벗겨 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몸체가 제법 매끈한 소총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까치가 쓰고 메고 다니던 총과 흡사했다. 까치는 틀림없이 일본군에게 빼앗은 총이라고 했는데?

설아는 총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나비는 그 총에도 새겨져있었다. 개머리판 한쪽에 쇠로 된 나비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다.

하아!

숨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궤짝을 더 뒤졌다. 광목천으로 감싼 탄피가 나왔고, 탄피에는 못해도 수십 발은 더 되는 탄알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쇠덩이로 만들어진 족쇄가 놓여 있었다. _p.78

Q1 아래 보기 중 할아버지가 궤짝에 남긴 물건에 모두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

편지

머리핀

소총

탄피(탄알)

신발

족쇄

Q2 할아버지가 남긴 소총에는 어떤 표시가 있었나요?

Q3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비의 이미지와 소설 속 나비의 상징을 생각해서 써 보세요.

8. 산막을 떠날 거야!

가끔 두현이 무슨 일이나고, 사사키와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고 물었다. 별것 아니라고 태연한 척 했지만, 잠시도 놈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설아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이 산막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초조하기만 했다.

산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사사키를 다시 찾아내서 진실을 아는 것이 먼저란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모닥불은 완전히 꺼졌고, 동굴은 캄캄해졌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미리 챙겨 놓은 보통이를 짚어지고 총까지 어깨에 걸친 다음 조심스레 동굴 밖으로 나갔다. 오히려 달빛이 내리비치는 동굴 밖이 훨씬 환했다. 다만 바람이 불었다. 앞과 앞이 스치는 소리, 골짜기를 따라 짐승의 울음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와 스산했다.

잠시 뒤를 돌아 동굴 안을 쳐다보았다.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애뜻하고 아쉬웠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산막 사람들은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렸고,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가족처럼 대해 주었으니까. 설아는 어금니를 물고 돌아섰다. _p.118

Q1 설아가 산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내가 설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예) 백두 대장님께 도움을 청한다.

9. 정면 돌파 (Feat. 원주댁)

“더 놀라운 소식도 들었어. 아이 중 일부는 또 다른 부대로 끌려가서…….”

“733부대 말인가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 그곳으로 끌고 가 어른들도 버티지 못하는 지독한 훈련을 시켜 살인 병기로 만든다는 거야. 너무나 무서워서 사방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던 참에 마적단이 다리를 놓아 줬어.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지.”

“그가 사사키였군요.”

“맞아. 사사키가 아이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어. 살려 줄 테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 나는 그를 붙잡고 매달렸어.”

“그래서 산막의 작전을 알려 주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군요.”

“아니야. 내가 맡은 임무는 그게 아니었어. 사사키는 독립군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 건 다른 일본군이 알아서 한다며 자신의 관심은 오직 하나라고 했어.” _p.131

Q1 원주댁이 설아를 위험에 빠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설아와 원주댁이 가기로 한 곳은? Hint p.133

Q3 원주댁 아들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 볼까요? Hint p.149

10. 수상한 사람

결국 놈은 방금 전까지 원주덕이 있던 자리에 앉았다. 뺨뺨한 팔자 콧수염, 왼쪽 이마의 새끼손톱만 한 붉은 반점까지 상세하게 보였다. 그래서 더 역겨웠는지도 모른다. 설아는 갑작스레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혹시나 했는데, 틀림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잘했지. 네 그 붉은 머리칼이 아니었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 그새 많이 컸구나.”

일본말이었다. 그 말이 하나도 막힘없이 귓속에 들어와 박혔다. 아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사키의 말을 듣는 순간 설아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머리카락에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머리카락의 붉은빛이 밖으로 내비치기 전에 수도 없이 푸른 깃잎과 호두 껍데기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었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고 쳐도 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마치 설아를 잘 알고 있다는 어투가 아닌가. 물론 설아는 대꾸할 수 없어서 놈을 노려 보기만 했다.

“그 푸른빛이 도는 눈빛도 여전하고……. 그래, 게다가 넌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였어.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사사키가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설아는 그 모습이 역겨워 토할 것만 같았다. _p.66

Q1 사사키가 설아를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볼까요?

Q2 사사키가 그토록 설아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int p.150

11. 빛은 확실하게 값은 거다?

바로 그즈음이었다. 백두 대장의 말에 따라 뒤채 쪽으로 걷던 설아는 몰려 있는 사람의 무리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중에서 아주 눈에 익은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일본군 병사들과 함께 들이닥쳐 할아버지에게 총을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던 마적단의 하나였다. 족제비 상의 얼굴 긴 그 남자가 무리 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게 보였다.

(사이)

백두 대장은 다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윤길주, 이제 말해 보게. 한마디라도 거짓을 고하면 너도 죽는다. 알겠지? 왜 거기까지 간 것이야?”

백두 대장이 족제비 상 남자, 아니 윤길주를 향해 말했다. 그러자 윤길주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백두 대장의 눈치를 보았다. _p.46

Q1 설아의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산막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Q2 설아는 대나무 밭에서 마적단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다 두건을 쓴 사내가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Hint p.183

Q3 두건을 쓴 사내는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나요? Hint p.184

12. 소녀 저격수 시즌2

사위는 캄캄했다. 달도 뜨지 않았고, 희미한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발아래조차 구분하기 힘든 어둠이었다. 그러나 저편, 733부대의 담장 너머에 있는 건물 곳곳은 불빛이 반짝거렸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야!’

대부분이 기억났다. 저 부대 안에서 잠을 자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연병장을 뛰었다. 감자 네 알로 아침을 대신한 다음 총을 쏘고, 돌씩 격투 훈련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부대 뒤편의 산으로 이동해 저녁때까지 오르내렸다. 그리고 돌아와 밥과 국밖에 없는 저녁을 먹고, 자정까지 압호 해독술과 조선어와 일어와 중국어를 배웠다. 그러는 동안 무수히 맞았고, 그걸 참지 못해 탈출하다가 죽음을 맞은 아이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럴 것이다. W1125나 혹은 M0902와 같은 아이들이 또 있으리라. 원주택의 아이 수호도 있을 것이고, 한없이 낮익어서 서로 총을 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던 골목길 소년도 조나단으로 키워졌을 테다.

(사이)

설아는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을 건물 경비병을 향해 조준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 하나, 둘, 셋. 설아는 방아쇠를 당겼다. _p.193

Q1

에필로그에서 설아는 733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만약 소녀 저격수 시즌2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4 소녀 저격수 한정영 지음
- 83 한판 불을 결심 박하령 지음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 82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신현수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81 힛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 80 플나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령 아이 손서은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78 덕롤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 회원 필독서](#)
- 77 안전가옥 코드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함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코넬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토큰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속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벨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윤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체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해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케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기지어 안녕 스텐우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5 스페이스 보이 닉 레이크 지음 | 이재경 옮김
- 54 니나 대장 실종사건 스텐우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기지어 살인사건 스텐우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델린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7 트루와 넬 G.네리 지음 | 차승은 옮김
- 45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 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엘리스 안트예 스틸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5 쓰레기왕 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 김민영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4 쌍꺼풀 만나 지음 | 김선희 옮김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흠으로 슬라이딩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